

2025 새해 이렇게 박우량 신안군수

“자긍심 가득한 섬, 자랑스러운 신안 만들기 박차”



미술관 잇단 개관 ‘1섬 1뮤지엄’·‘1섬 1정원’ 사업 순조로운 추진 햇빛연금 확대·7월 바람연금 첫 지급...신재생에너지 중심지 조성

“자긍심 가득한 섬, 자랑스러운 섬 신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최근 광주일보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지난해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도, 경이로운 성과를 거두며 세계 속의 신안으로 우뚝 발돋움했다”며 “올해도 이러한 도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극복해 스스로 미래를 열어가는 희망의 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올라퍼 엘리아슨의 미술관(도조면)은 국내·외에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박 군수는 올해 12월 비금면에 개관 예정인 안토니 고퍼의 미술관도 신안의 자랑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굳은 긴 호흡으로 문화-예술도시 조성에 전력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안좌면에는 야나기 유키노리 작가의 플로팅 뮤지엄, 자연면에 박은선 조각 뮤지엄, 압해읍에 그래픽티 타운 등을 조성해 세계적인 문화예술 공간 창출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달 개관하는 황해교류박물관을 비롯해 30개의 뮤지엄 조성 공사가 한창이라고 했다. 또 바다 위 꽃 정원 조성 프로젝트인 ‘1섬 1정원’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박 군수는 압태도에서 발굴된 자연 그대로의 거석과 괴석을 쌓아 만드는 암석정원은 그 누구도 흉내를 낼 수 없는 독특한 배치와 양식으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올해 말까지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유지하고, 산업기반을 조성해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6개 지역이 햇빛연금을 받는 가운데 오는 7월에는 풍력발전에 의한 바람연금을 자은도에 최초로 지급할 계획이다.

그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특별법’은 새로운 규제와 지방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전남도와 협의해 최대한 지방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신안군이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햇빛과 바람연금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농어민이 고루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대형 스마트팜 농장을 확대 조성하고, 신성장 동력 6차 산업과 연계해 차세대 소득원으로 개발할 방침이다. 어선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10여척을 추가 확보하고 향후 100척까지 임대해 고소득 수산업의 비중도 높여가겠다는 구상이다.

생태, 인문학이 살아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 청사진도 제시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88억원을 투입해 팔금도에 Book-아일랜드를 조성하고 세대 어울림 센터를 완성해 주민 공동체 복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국도 외곽 흑산권역 또한 K-관광속 육성사업비 100억원을 투입해, 세계 관광 트렌드에 어울리는 인문, 자연, 생태환경 중심의 섬-해양 체험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해 나갈 방침이다.

박 군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보전에도 힘쓰겠다”며 “갯벌이 삶의 터전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갯벌 식생을 복원하고 불법 해양폐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갯벌과 습지 생태계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시각지대와 소의 계층 등 빈틈없는 맞춤형 복지 실현 계획도 내놴.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 맞춤 돌봄, 독거노인 응급 안전, 어르신 지킴이 사업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집집이 찾아가는 방문간호 서비스도 정착시킬 구상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도 소홀함이 없이 추진한다.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와 난임부부 시술비, 출산지원금사업으로 1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박우량 신안군수는 “그동안 우리 군이 시도했던 도전들이 새해에는 튼튼히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와 꽃이 맺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며 “아낌없는 신뢰와 격려를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영광군 “설 명절 영광굴비로 감사의 마음 전하세요”

한 달간 수산특산물 홍보 나서

‘굴비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등 굴비의 주산지인 영광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특산물 홍보에 나선다.

영광군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2월 7일까지 30일간 영광 대표 수산특산물 홍보를 실시한다.

방송매체를 통해 영광군 수산물인 영광굴비(사진)와 천일염, 민물장어, 찹쌀 등을 소개한다.

영광군은 영광 법성포 굴비거리 상가나 영광군 굴비 단체에서 전화와 택배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고,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굴비해양수산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영광굴비는 2년 이상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조



기를 한 마리씩 염장하고, 건조에 알맞은 해풍과 습도를 갖춘 천혜의 지역인 영광법성포에서 자연

건조 시키는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뛰어난 맛과 풍미를 자랑하는 영광굴비는 대한민국의 대표 반찬으로 사랑받고 있으며, 특히 명절 제수용품으로도 각광받고 있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도의원 시절 이개호 국회의원과 함께 굴비 업계의 숙원인 굴비 지리적 표시제를 도입, 굴비 생산자들의 수익 증대에 앞장섰다.

영광군도 굴비해양수산과 굴비천일염젓갈팀을 운영하는 등 영광굴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에서 생산한 맛 좋고 품질 좋은 영광군 특산품으로 가족과 지인에게 사랑과 감동을 선물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목포시, 옥암 대학부지 통합목포고 부지 활용

3만3000㎡ 용도변경 절차

목포시는 옥암 대학부지 일부에 대해 용도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목포고와 목포여고의 통합에 따른 (가칭)통합목포고등학교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시는 옥암대학부지 전체면적 19만6793㎡(6만여평) 중 3만3000㎡(1만평)를 대학부지에서 고등학교 부지로 변경할 예정이다. <사진>

시는 지난해 4월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한 이후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으며, 오는 4월 지적확정측량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목포고는 남약신도시 택지개발로 옥암지구 내 학생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학교 부족으로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오는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사업비 644억원을 투입, 32개 학급 규모로 신축된다.

목포시는 시의회 승인을 거쳐 옥암대학부지 3만3천㎡를 무상 임대 방식으로 이설부지를 제공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통합목포고의 이전이 완료되면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생 통학불편 해소는 물론 첨단 교육시설을 갖춘 글로벌 미래교육 중심지로 옥암지구의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해남형 빈집재생 프로젝트’ 시동

리모델링·신축형 12곳 지원

귀농·청년 등 월 1만원에 임대

해남군이 방치된 빈집을 재생해 전입 예정자에게 주거시설로 지원하는 해남형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빈집을 개조해 임대하는 리모델링형과 철거 후 새로 짓는 신축형,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생을 마친 빈집은 해남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희망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리모델링형은 5개소로 군에서 최대 5000만원을 투입해 새 단장 후 귀농귀촌인, 청년, 은퇴자 등 해남군에 전입하고자 하는 이에게 월 1만 원에 임대

할 예정이다.

신축형은 빈집을 매입 후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빈집 철거와 신축비로 최대 3000만원(자부담 50%)까지 총 7개소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할 빈집 소유자와 해남군 전입 예정자는 오는 23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사업참여를 신청하면 된다.

대상 빈집은 1년 이상 빈집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이 있는 적법한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1월호

2024년 12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작가 한강이 바라는 책 읽는 광주

특집

새해일출 치유의술 황토갯벌

2025년 신년기획

설레임 주는 서울·광주 명품진사들
새해, 예술로 시작해볼까?

무안 여행

2025년 신년기획

새해일출 치유의술 황토갯벌

정유정

장편 『영원한 천국』 펴낸 소설가

“내가 꿈꾸는 것은 힘있고 아름다운 이야기”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

영화 주인공이 되어 전남 로케이션 투어

2025년 트렌드

푸른 뱀의 해 'SNAKE SENSE'

예민한 감각이 필요해

환제의 문화 현장

2024 노벨문학상 시상식장을 뭉클하게 채운 작가 한강의 목소리

왕인의 예술가와 친구들

장르 넘나들며 끊임없는 파격 실험미술 거장, 이강소